

Salzburg Festival 2020



2020 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100 주년을 기념하다

페스티벌의 창시자, 그 중에서도 시인 휴고 폰 호프만슈탈, 극장 임프레사리오 막스 라인하르트, 작곡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오스트리아에서 예술의 세계 수도를 꿈꾸었다. 이들은 대도시의 혼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잘츠부르크에 시작하기 원했다. 휴고 폰 호프만슈탈의 빼어나게 아름다운 표현에 따르면 잘츠부르크는 “유럽의 심장부의 심장”이기 때문이다.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세계 제 1 차대전 이후 “첫 번째 평화 프로젝트 중 하나”(막스 라인하르트)이자 합스부르크 제국에서 소국으로 바뀐 오스트리아의 분명한 예술적 진수이었다. 오페라와 극장, 이 둘의 최상—이것이 페스티벌의 지침으로 단순하게 들리지만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평화를 부르는 자로서 예술, 프로그래밍 지침으로서 고품질—이렇게 두 개의 설립 관념이 수십 년간 우리를 이끌어 왔다.

1920 년 단독 드라마 공연을 시작했던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오늘날 세계 최대의 클래식 페스티벌로 자리매김했다. 2019 년 43 일동안 16 개 장소에서 199 개 공연이 열렸고 비 유럽국가 40 개를 포함해 78 개국에서 방문객이 다녀갔다

국경 없는 유일한 언어인 음악으로 우리는 특히 100 주년을 맞아 세계 각지의 사람들에 닿기를 바란다. 관객과 청중이 페스티벌의 성공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던 막스 라인하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고는 무대뿐 아니라 객석에서도 모여야 한다.”

이 정신을 이어,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역사상 매우 중요한 2020 년 여러분을 초대한다.



위대한 세계 무대—잘츠부르크 페스티벌 100 주년

역사적인 도시 중심부 광장에서 드라마 공연으로 시작한 것이(극장을 짓는 일은 너무 비쌌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클래식 페스티벌로 자리잡았다,

2020 년 44 여일 동안 16 개 장소에서 약 200 여 개의 공연이 펼쳐지며 80 여 개국—그 중 40 여 개의 비유럽 국가—으로부터 관객을 불러들인다. 이 숫자만으로도 지난 약 100 년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증명해준다.

이 도시의 위대한 아들—당연히,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을 기리며 정기적인 음악 행사를 개최하는 아이디어는 페스티벌이 1920 년 창립되기 훨씬 이전 발현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세계 제 1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 디렉터이자 임프레사리오 막스 라인하르트, 시인 휴고 폰 호프만슈탈, 작곡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를 위시한 그룹이 이 계획을 부흥시켰을 때에야 그 구체적 형태를 갖추었다.

페스티벌이란 아이디어를 통해 “창립 멤버들”은 혼돈의 전후 시대로부터 질서를 어지럽히려고 노력했다. 오스트리아 군주의 붕괴 이후 축제 기관으로서 극장은 전통과 국가 정체성,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려고 했다. 이 페스티벌은 정체성 위기와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가치 상실에 대항한 프로젝트가 되었다. 그리고 창립자들에게 이들의 대담한 프로젝트를 시행할 최적의 장소는 자연과 건축적 매력을 갖춘 잘츠부르크로 나타났다. 휴고 폰 호프만슈탈이 아름답게 묘사했듯이 “잘츠부르크는 유럽 심장의 심장이다.”

Max Reinhardt & Hugo von Hofmannsthal ©ASF/Ellinger



Jedermann 1920 ©ASF/Ellinger



1920 년 8 월 22 일,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휴고 폰 호프만슈탈의 <예더만>이 잘츠부르크에서 막스 라인하르트 연출로 성당 밖에서 처음 공연되었고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이후 “부유한 남자의 죽음에 관한 유희”는 해마다 프로그램을 빛내고 있다. 단 두 번의 예외가 있었는데 바로 1922 년부터 1925 년까지 그리고 1938 년부터 1945 년까지다. 이 작품은 페스티벌의 오랜 아이콘이자 트레이드마크가 되어왔다.

이듬해인 1921 년에는 추가적인 오케스트라와 실내악 콘서트가 열렸다 1922 년 모차르트의 세편 다폰테 오페라—돈지오반니, 피가로의 결혼, 코지판

투테—가 최초로 무대에 오른 후, 페스티벌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핵심 구조를 찾았다. 바로 오페라, 연극, 콘서트로 휴고 폰 호프만슈탈이 그의 창립 성명서에서 요구했던 “최상의 것,” 혹은 오늘날 말하듯이 “최상”이다. 이처럼 품질은 페스티벌의 창립 가이드라인이다.

약간의 차질—1924 년 시즌은 자금 부족으로 취소돼야만 했다—을 겪은 후 행사는 지속되었다. 더 많은 공연 일자와 추가적인 장소가 이제는 정기적인 쇄신책이 되었다. 1925 년 빈필하모닉의 이름이 잘츠부르크 프로그램에 올랐다. 이래로 빈필하모닉은 페스티벌의 중심이 되어왔고 오늘날까지 약 2,200 개의 오페라와 800 회의 콘서트를 연주해왔다.

1933 년과 1937 년 사이,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외부 세계에 오스트리아의 국가적 문화적 독립성의 상징을 나타내었다. 아르투르 토스카니니, 브루노 발터와 같은 아티스트가 끊임없이 예술적으로 자신을 이념적으로 “반-바이로이트”로 입지를 굳히며 이미 독일을 지배하는 국가 사회주의에 반대해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을 세계화하려고 노력했다. 여름에는 이 도시가 국제적으로 상류사회의 모임 장소가 되었다.

1938 년 히틀러 독일의 오스트리아 합병과 나치의 문화 정책이 페스티벌을 변모시켰다. 여러 작곡가와 작품이 금지되었고 아티스트의 작품이 금지되거나 억압되었다. 1944 년 히틀러의 암살미수 이후 페스티벌은 전적으로 취소되었다.

그 후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 유럽에서 전쟁이 종결된 지 단 삼 개월 후 1945 년 여름 미국 점령군이 페스티벌이 다시 개최되는 것을 허가 및 지원하였다.

도시는 폭탄 공격으로 심하게 손상을 입고 군인과 난민들로 가득 차 중요한 물자, 그 중 세계 제 1 차대전이 끝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식량이 부족함에도 페스티벌의 정치적 미션은 오늘날까지



Der Rosenkavalier 1961 © ASF/Ellinger



Carmen rehearsal with Herbert von Karajan 1966

© ASF/Ellinger

수행되어 왔다. 잘츠부르크를 1955 년 조약까지 지배했던 미국군의 최고사령관은 오스트리아에서 공식 모습을 최초로 드러내는 데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개막식을 선택했다. 이를 “문화적 자유의 재탄생 기념”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이르면 1948 년, 그 이름이 여전히 잘츠부르크 페스티벌과 영원히 연계된 한 사람이 중심 무대에 등장한다. 바로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잘츠부르크 출신으로 그는 현재 페스티벌 지역에서 불과 몇 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태어났다. 카라얀은 1933 년과 1989 년 사이 무려 247 개 오페라와 90 회 콘서트를 지휘하고 또한 14 회 오페라 제작을 연출했다. 그는 또한 음악, 특히 세계화에 주력했다. 그는 우수한 세계 스타오와 이들과 함께 전 세계에서 초청 음악인을 불러들이려 노력했다. 1950 년 카라얀은 신축 잘츠부르크 축제극장을 열었고 그 극장의 컨셉에 핵심적인 영향을 끼쳤다. 1967 년 그는 부활절 페스티벌을, 1973 년 잘츠부르트 워선 콘서트를 창립했다. 또한 레코딩에서 멀티미디어 사용 개발을 한 중요한 인물이다. 기타 아티스트보다 앞서 그는 세계의 새로운 청중을 사로잡기 위해 현대 미디어의 거대한 잠재력을 인지했다.

1989 년 카라얀이 베르디의 <가면무도회> 리허설 도중 서거했을 때 페스티벌은 중심 인물을 잃었고 서서히 채워줘야 할 빈자리가 생겼다.

2006 년은 당시 예술감독 피터 루지카 덕분에 페스티벌 100 주년을 기념하는 해였다.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탄생 250 주년을 기념하며 그의 오페라 22 곡을 무대에 올리며 잘츠부르크를 모차르트 해석의 수도로 만들었다. 이는 국제 매체에 거대한 공명을 발견했으며 관객으로부터 열정적인 찬사를 받았다.

페스티벌 역사상 높은 예술적 기준에 대한 최고의 전통을 유지하며 마르쿠스 힌터호이저가 2017 년 예술감독 지위를 맡았다. “페스티벌은 예외적인 것의 중심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의 신조다. 저명한 캐스팅을 통해 단순한 행사 이상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 페스티벌은 단지 전환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에 대해 초청 하는 특수한 예술적 성좌를 형성한다. 이는 역시 막스 라인하르트와 휴고 폰 호프만슈탈의 창립 이념 중 하나로 다가오는 세기 잘츠부르크 강점의 미션이자 강점으로 남아있다.



Wiener Philharmoniker with Riccardo Muti 2019 © SF/Borelli

우연한 공생

빈필하모닉은 잘츠부르크의 정체성 일부를 구성한다. 차례로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빈필하모닉 정체성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 오케스트라는 잘츠부르크에서 수 차례 연주하며 “잘츠부르크 필하모닉”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 문화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1842 년이 빈과 잘츠부르크 음악 생활의 중요한 새 출발점이라는 사실은 행복한 우연이다. 오토 니콜라이는 빈국립오페라극장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심포니 오케스트라 빈필하모닉을 창단한다. 잘츠부르크에서 결연에 찬 시민들은 특별한 문화적 행동으로 완전히 잊혀진 작은 마을을 가난의 수렁에서 꺼내었다. 이들은 당시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빈으로만 연상되는 도시의 자랑스러운 아들 모차르트를 기억하고자 기념비를 세웠다. 이 기념비가 “여기에 행복이 머물다”라는 모토가 새겨진 로마시대 빌라 토대에 세워졌다는 사실은 상서로운 조짐이었다.

빈필하모닉 역사에서 잘츠부르크는 1877 년 최초의 야외 공연 장소로 특별한 위상을 차지한다. 여기서 빈필하모닉은 1910 년까지 “음악페스티벌”에 특별한 광채를 선사했다. 1920 년부터 오케스트라는 빈과 남아메리카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던 페스티벌하우스 협회를 위해 자선콘서트를 열었다. 1922 년 빈필하모닉은 페스티벌의 첫 번째 오페라를 선보였고, 1925 년 이래 여름 레지던시가 오케스트라의 연례 행사로 자리잡았다.

세계 제 2 차 대전 동안 오케스트라는 1940 년을 연계하며 잘츠부르크와 중요한 연대를 증명하는데 당시 페스티벌은 잘츠부르크 콘서트 사이클을 자비로 진행할 수 없었다.

또 하나의 감동적 이벤트는 이미 나이가 지긋해진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참석한 빈필하모닉의 마지막 공연이다. 1944 년 8 월 16 일 그의 오페라 <다나에의 사랑> 드레스 리허설을 마친 후 슈트라우스는 오케스트라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여러분, 더 나은 세상에서 만납시다.” 불행히도 이는 실현되지 못했다. 히틀러 암살 시도 실패 후 페스티벌은 취소되었고, 오페라 초연은 작곡가 서거 후인 1952 년에야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열렸다.

오늘날까지 빈필하모닉은 페스티벌에서 2,250 여 회의 오페라와 800 여 회의 콘서트를 열었다. 즉 페스티벌이 세계 최상의 명성을 얻기까지 오케스트라가 중요한 기여를 했음이 분명하다. 시작부터 오케스트라는 잘츠부르크가 유명해질 음악적 기준을 설정했다. 페스티벌은 잘츠부르크에 최상의 지휘자를 초청하고 음악가들이 최고의 지휘자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새롭고 흥미로운 예술적 조우를 마련하였다. 빈필하모닉이 없었어도 잘츠부르크에 페스티벌이 있었을 테지만 이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이 아니었을 것이다!

Artists about the Salzburg Festi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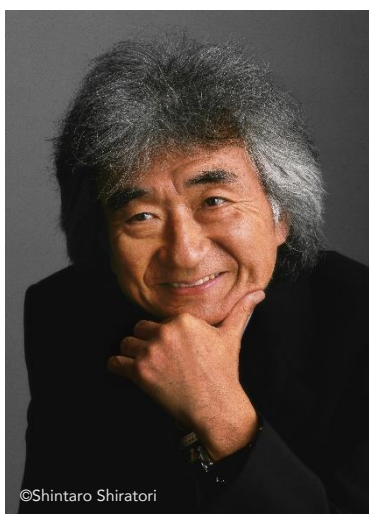
"Every artist dreams of one day performing at the prestigious Salzburger Festspiele. For me to debut there this past summer in Mozart's *Idomeneo* with Peter, Teodor and the whole team was definitely one of the most important moments in my career. The whole experience was a true pleasure: open, welcoming, and inspiring- I felt like being a part of a big family. Thank you!" – Ying Fang, soprano



"The Salzburg Festival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lassical music festival in the world. It was an unforgettable experience for me because it gave me the fantastic feeling of being able to combine with the greatest musicians of today and those of the past. I am honored to have participated in the Salzburg festival in *Aida* and in *Ernani* and I hope to return soon. Best wishes for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Salzburg festival!", says Vittoria Yeo, soprano.



"Congratulations on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Salzburger Festspiele. We still have a vivid memory of the NHK Symphony Orchestra performing at the Felsenreitschule in the summer of 2013. It is quite an honour and privilege for the orchestra and its members that we became part of the festival of such a long-standing history and tradition. We wish you further prosperity." Yoshinori Nemoto, chairman NHK Symphony Orchestra, Tokyo



"My Salzburg festival time was like a dream. I learned so much and I enjoyed so much."
Seiji Ozawa, conductor





Selected Awards

Musical America

Celebrating its centennial next summer, the Salzburg Festival has been chosen Festival of the Year for the 2020 Musical America International Directory of the Performing Arts. Only once before has an institution, rather than an artist, been chosen for MA's "Of the Year" honor, and that was in 2000, when Carnegie Hall, celebrating its centenary, was deemed "Concert Hall of the Century" MUSICAL AMERICA, October 2019

Opera Award

Since 2012 the „International opera Award“ awards the best of the best in the classical world. It has been called "Oscars of the Opera". In 2013 the Salzburg Festival won the "International Opera Award" in the category "Best Opera Festival".

In 2014, the production "Norma" was selected as winner in the category "best opera production".

Opernwelt – Performance of the year

"Salome" performed at the Salzburg Festival has been voted "Performance of the year 2019" by the critic survey of the magazine "Opernwelt"; Romeo Castellucci provided the best stage-direction and stage design, and the Lithuanian soprano Asmik Grigorian in the title role was voted "Singer of the Year".



2020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2020 년 7 월 1 일 – 2020 년 8 월 30 일

44 일간 16 곳에서 약 200 회의 공연

오페라

5 신작

2 재연

1 콘서트 공연

드라마

예더만 • 휴고 폰 호프만슈탈

5 신작- 세계초연 1 작품

리딩

콘서트

<Spirituelle> 서곡

빈필하모닉

초청 오케스트라

„시간과“-시리즈

실내악 콘서트

리트 리사이틀

리사이틀

모차르트 마티네

카메레타 잘츠부르크

영 싱어즈 프로젝트

아동 및 청소년

어린이를 위한 오페라

오페라 캠프

청소년 회비

영 프렌즈

지멘스 >어린이 >페스티벌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및 어린이 합창단

손더 콘체르트

창립 기념해 연장 프로그램

Anna Netrebko in La Traviata ©Klaus Lefebvre



Mitridate, re di Ponto ©Klaus Lefebvre



Vittoria Yeo and Ekaterina Semenchuk in Aida ©SF/Ritterhaus





2020 잘츠부르크주 전시

“위대한 세계의 극장—잘츠부르크 페스티벌 100 주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협업 잘츠부르크 박물관 전시

장소: 노이에 레지덴츠, 잘츠부르크

전시 공간: 1,800 m²(19,000 평방피트)

기간: 2020 년 4 월 25 일-10 월 31 일(월요일-일요일)

주 전시회의 아이디어와 자아개념

주 전시회 “위대한 세계의 극장—잘츠부르크 페스티벌 100 주년”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공연예술 페스티벌에 헌정하며 현재까지 역사와 발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뿐 아니라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미래에 대한 열린 시각을 제시한다.

따라서 노이에 레지덴츠 소재, 잘츠부르크 박물관에서 열리는 주 전시회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을 조우하는 장소다. 스토리, 상연 및 행사가 방문자에게 경험과 참여의 공간 및 개인적 기억을 선사한다. 공동의 목적은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며 제도적, 예술적 기여와 다양한 목소리를 포함한 내러티브로 방문객을 인도하는 것이다.

주 전시회는 주로 네 장으로 구성되며 장마다 노이에 레지덴츠 내에서 각자의 공간을 지니고 있다.

1 장—스크린으로 만나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주 전시회 방문객이 포르티코에 들어서면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역사를 다룬 영상이 이들을 맞이한다. ORF 가 제작한 다큐멘터리는 페스티벌의 창립 및 연대기, 역사적 맥락을 소개한다.

2 장—“기록 보관소”—잘츠부르크 페스티벌 100 주년

걸어서 입장할 수 있는 백과사전이 인물 주인공과 페스티벌의 전개, 문서와 자료, 사실 및 통계, 소리와 이미지, 문자와 역사를 한자리에 모은다. 이 장은 주 전시회의 핵심으로 1920 년부터 2020 년까지 페스티벌 100 년의 역사를 회고한다.

사진, 리뷰, 출판물, 스케치 및 문서를 갖춘 전형적 기록 보관소가 의상 컬렉션, 워크숍, 가구 및 소품 컬렉션의 삼차원 물체로 보완되며 음성 파일과 필름 및 오디오 샘플이 이를 강화한다. 100 개의 물체는 페스티벌의 100 년 역사를 대표한다.

3 장—대화를 통한 조우

3 장은 빈유대인박물관, 빈극장박물관, 잘츠부르크 문학기록보관소, 빈필하모닉 등의 기관과 세계적으로 저명한 아티스트와 협업하여 투어를 기획한다. 아티스트는 그들의 관점을 페스티벌에 반영하도록 초청되고 각자의 전문성과 능력 및/혹은 예술적 개입으로 집합적 내러티브에 기여한다.

4 장—무대 위 박물관

4 장에서 주 전시회는 잘츠부르크 박물관의 미술전시관을 무대로 변화시킨다. 2020 년 4 월 25 일부터 10 월 31 일까지, 특히 2020 년 여름 페스티벌을 포함해 전시 기간 내내 박물관은 미술전시관의 전체적 컨셉 내에서 페스티벌 (히)스토리에 무대를 제공하는 공연장 역할을 한다. 또한 아티스트와 무대 앞뒤의 사람들, 관객에게 플랫폼을 제공한다. 더불어 필름 프로그램, 패널 토론, 패션쇼, 기타 다수의 공연 시리즈를 기획한다. 하지만 박물관은 무엇보다 전반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에 주력하고 있다.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주요 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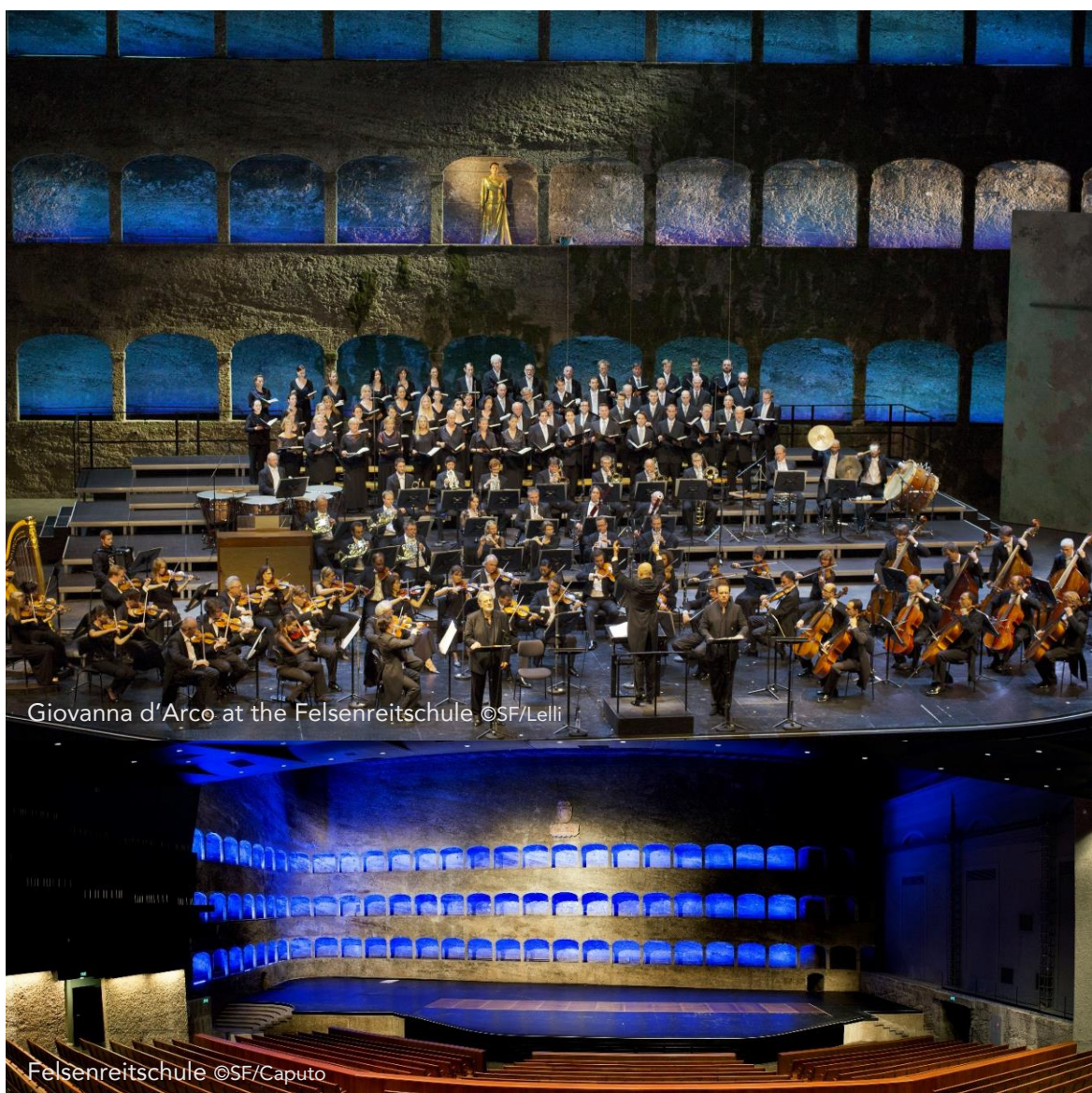
대축전극장과 모차르트하우스, 펠젠라이트술레가 약 200m 떨어진 성당광장, 대학교회와 함께 페스티벌 지구를 형성한다. 1606-07 년 대주교 볼프 디트리히가 이 곳에 말 훈련장을 세웠고 1662 년 겨울 승마 학교가 부설되었다. 19 세기에는 기병대의 병영으로 사용되다가 1925 년부터 점차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 개방되었다.



펠젠라이트슐레

겨울 승마 학교를 바꾸고 여름 승마 학교(펠젠라이트슐레)를 극장으로 변형시켜야 한다고 제안한 사람은 바로 막스 라인하르트였다. 17 세기 초반에 성당을 지식 위해 이곳에서 암석이 채석되었다. 1693 년 세 개 층 96 개 회랑이 폐기된 채석장 벽에 세워져 사람들이 승마 경기나 동물 사냥 행사를 관람할 수 있었다.

1926 년 막스 라인하르트가 최초로 펠젠라이트슐레를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공연 무대로 사용하고, 1948 년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지휘로 펠젠라이트슐레에서 최초의 오페라가 무대에 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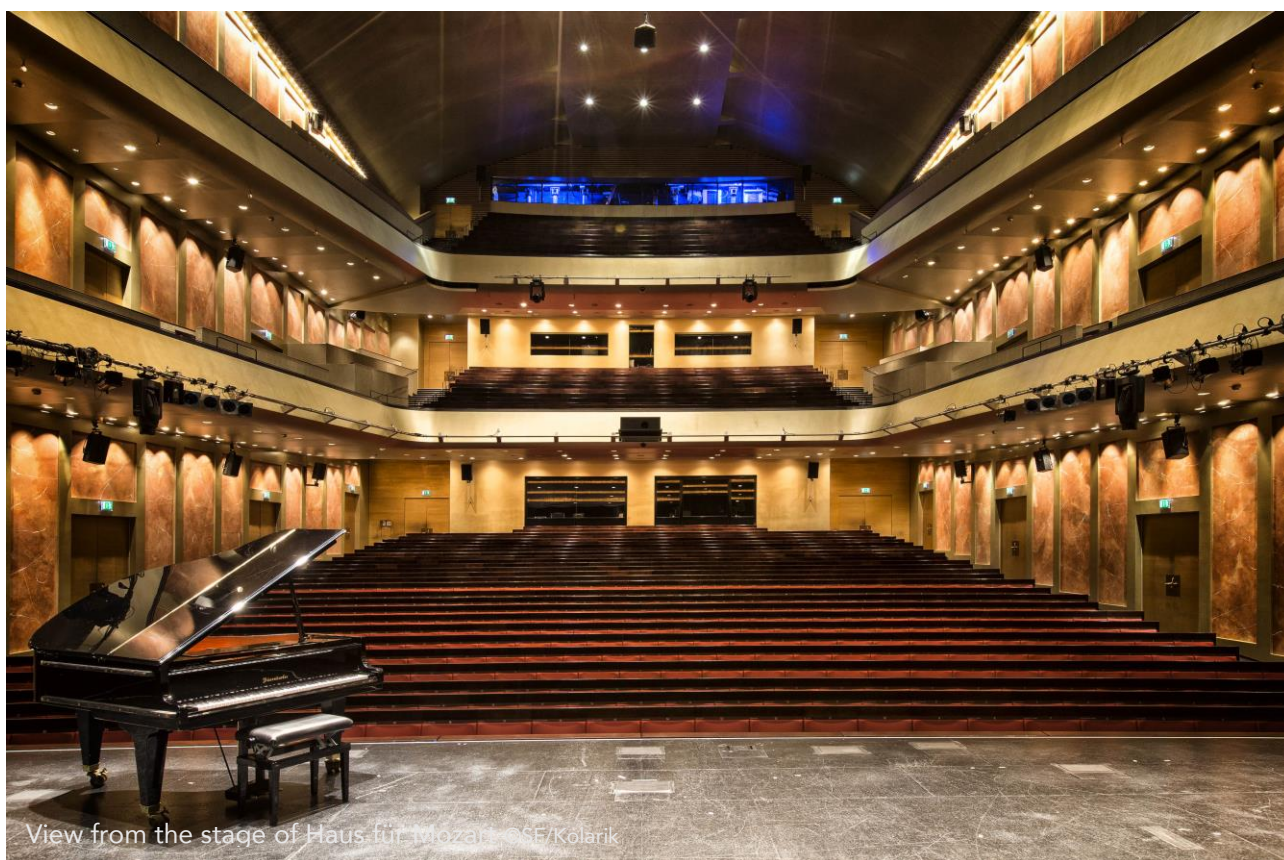
모차르트 하우스

임시 페스티벌 홀로 1925 년 대규모 겨울 승마 학교 부지에 건립되어 잘츠부르크 대극장(Das Salzburger Grosse Welttheater)와 함께 개관했다. 일년 만인 1926 년, 건축가 클레멘스 홀츠마이스터가 재건축 1 단계를 감독하고, 1927 년 오페라 공연을 위해 다시 한번 변경된다. 베토벤의 “피델리오”가 이곳에 오른 최초의 오페라다.

Kleines Festspielhaus 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이 건물은 수 차례 재건축 단계를 거친다. 1937 년 객석이 180 도 바뀌었고 1962-63 년에는 가시선과 음향이 개선된다.

수년 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뛰어난 음향과 전 좌석에서 최선의 가시선을 확보해 모차르트의 작품이 모든 면에서 무대에 오르기 적합하도록 „모차르트 하우스” 건립 계획을 시행했다.

2006 년 모차르트 탄생 250 주년을 기념하며 마침내 „피가로의 결혼”(지휘: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 무대감독: 클라우스 구트)을 서두로 모차르트 하우스가 개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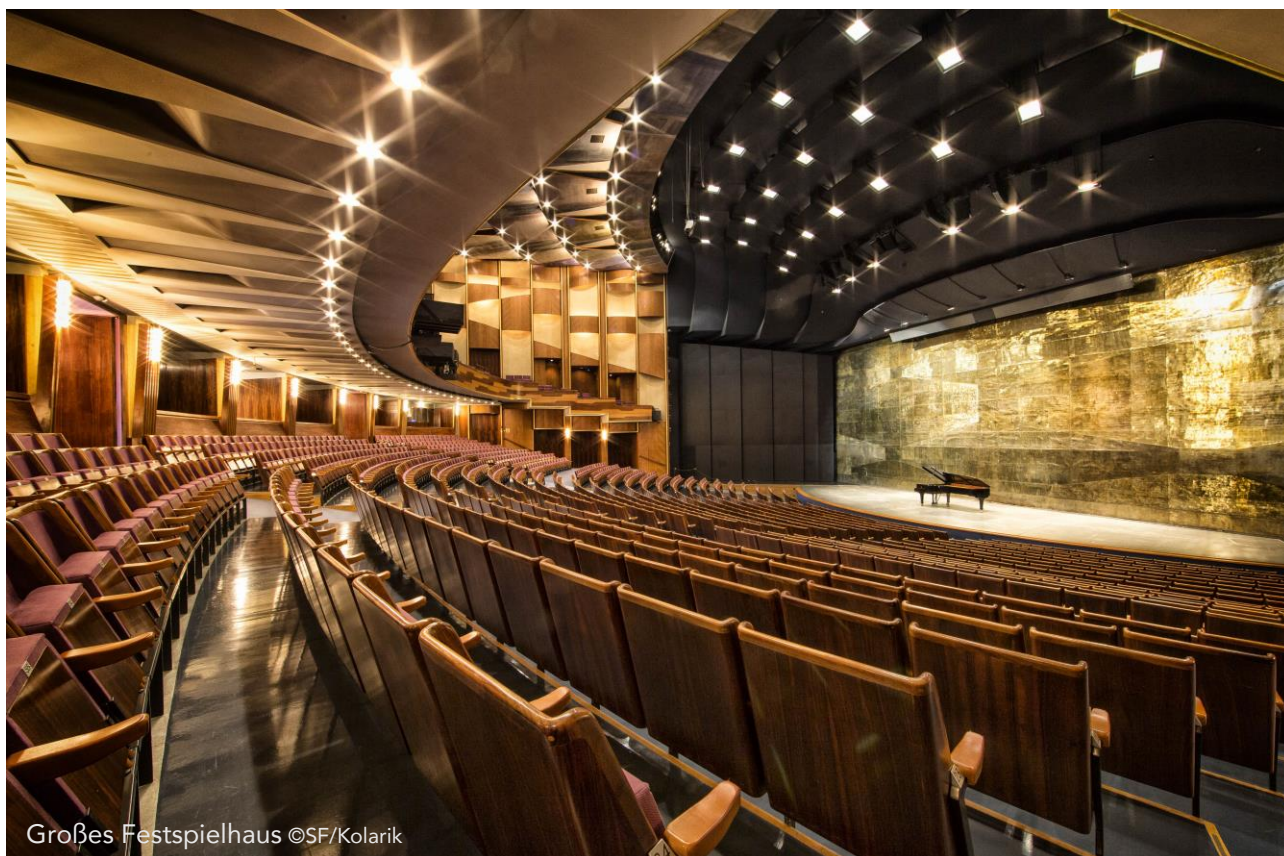


View from the stage of Haus für Mozart ©SE/Kolarik

대축전극장

과거 대주교의 웅장한 말 훈련장이 있었던 대축전극장에 대한 계획은 주로 건축가 클레멘스 홀츠마이스터가 세웠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역시 건축 프로젝트, 특히 극장 홀의 디자인과 관련해 제언을 하였다. 300 년 역사의 궁정 말 훈련장과 뮌히스베르크 사이에 구조 및 기술적 측면에서 최고의 세계적 요건을 충족하는 극장을 짓기 위해 모든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었다. 1956 년 가을과 1960 년 초여름, 55,000 세제곱미터 면적의 바위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제거되었다. 극장 건립의 재원은 주로 정부 예산이었고 그 결과 오스트리아가 대축전극장의 소유주다.

1960 년 7 월 26 일, 기념 행사와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장미의 기사" 공연으로 대축전극장이 개관한다. 객석의 지면 평면도는 거의 35m 정사각형이며 원형으로 이상적인 음향 조건과 2,179 석에 가시선을 확보하고 있다.





헬가 라블-슈타틀러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대표

헬가 라블-슈타틀러는 법, 저널리즘, 정치학을 공부했다. 1971년부터 1978년까지 경제와 정치 전문 저널리스트로 활동했고 오스트리아 일간지 **Kurier** 칼럼에 기고한 최초의 여성 저널리스트다.

1983년 잘츠부르크와 린츠에서 가족 사업인 **Modehaus Resmann**의 공동소유주이자 파트너가 되었다. 1983년부터 1990년까지 오스트리아 의회의 일원이었고 1988년 잘츠부르크 상공회의소 최초의 여성 의장이 되었다.

1955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대표로 임명되며 일체의 정치적 직위에서 사임한다. 페스티벌 대표로서 그녀는 놀라운 후원업체 네트워크를 개발했다. 두드러진 펀드레이징 성과는 **Haus fuer Mozart** 재건을 위한 자원 조성으로 이 기관은 2006년 재개관했다. 또한 전 세계에 어떻게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프로그램을 제시할 지에 대해 아이디어를 개발하며, 이로써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이 오늘날 47개 비유럽국가를 비롯해 85개국에서 방문객이 찾는 행사로 입지를 다질 수 있었다.

마커스 힌터호이저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예술감독

라스페치아(이탈리아) 출신으로 빈음악대학교와 모차르트대학교잘츠부르크에서 피아노를 공부했다. 피아니스트로서 카네기홀, 빈 무지크페라인, 빈 콘체르트하우스, 밀라노 라스칼라 등 세계의 주요 홀과 저명한 페스티벌에서 솔로리스트와 실내악 연주자로 공연했다. 최근 그는 현대음악 해석에 주력하며 특히 루이지 노노, 칼하인츠 슈톡하우젠, 모튼 펠드먼, 죄르지 리게티의 작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수의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했으며 아널드 쇤베르그, 알반 베르크, 안톤 폰 베베른피아노 전작 녹음을 완결했고 모튼 펠드먼, 루이지 노노, 자친토 쉘시, 갈리나 우스트볼스카야, 존 케이지의 작품을 CD로 녹음했다. 크리스토퍼 마탈러, 요한 지문스, 클라우스 미카엘 그뢰버그가 연출하는 드라마 프로덕션에도 꾸준히 참여한다.

힌터호이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빈페스티벌의 예술감독이었고 2016년부터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예술감독으로 맡고 있다. 큰 성공에 힘입어 그의 임기는 2026년 초까지 연장되었다.





잘츠부르크 성령강림절 페스티벌

2020 년 5 월 29 일-6 월 1 일

시간의 색상

폴랭 비아드로-가르시아(1821-1910)

2020 년 잘츠부르크 성령강림절 페스티벌의 포커스는 폴랭 비아드로-가르시아—가수이자 유럽의 음악 대사, 뛰어난 피아니스트, 작곡가—의 삶이다.

1800 년 이전에는 뛰어난 예술적 개성이 음악과 사회적 생활을 형성하는데 남성과 카스트라토가 주요 역할을 했다. 하지만 19 세기 들어 이 역할을 맡는 여성의 수가 증가했다. 디보가 디바로 바뀐 것이다. “계몽의 빛이 다른 사고방식의 19 세기를 비추며 음악애호가들은 이 호사스러운 젊은 남성으로부터 절대군주의 궁정을 빼앗은 다른 방식의 신성에 마음이 사로잡혔다. 바로 프리마돈나이다. 이후 이들은 여성 아티스트에게 성의를 보였다. 여성은 그 인위성이 상류층으로부터 총애를 받았지만 이제는 부자연스럽게 여겨지던 카스트라토보다 혁명 이후 부르주아 사회의 가치를 보다 잘 대변하였다. 여성들은 재빨리 입지를 다지며 신진 작곡가의 뮤즈로 부상했고 사실상 극장의 레퍼토리, 캐스팅, 출연료뿐만 아니라 악보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공식적 입지를 다지게 되었다” 라고 잘츠부르크 성령강림절 페스티벌의 예술감독 체칠리아 바르톨리는 말했다.

2020 년 잘츠부르크 성령강림절 페스티벌의 중심에 가에타노 도니체티의 오페라 부파 “돈파스칼레”가 있다. 체칠리아 바르톨리는 19 세기 폴랭 비아르도가 불렀던 노리나 역할을 맡는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오페라 ‘돈 파스칼레’ 데뷔를 하게 되어 정말로 기쁩니다. 저는 1845 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연 시리즈로 돌아가 폴랭 비아드로가 맡았던 변주와 카덴차, 부가 작품을 담은 버전의 노리나를 노래할거예요. 오케스트라는 정격 연주를 하고 벨리니와 로시니에 부여했던 반향의 새로운 버전을 창조할 거예요.” 체칠리아 바르톨리는 말한다.

토요일 모차르트 재단 본관 강당에서 열리는 아리아 콘서트의 제목은 “École classique.” 폴랭 비아드로에 대한 오마주로 로시니, 마이에베어, 구노와 헨델의 아리아와 오케스트라 작품을 연주한다. Gianluca Capuano 가 “Les Musiciens du Prince – Monaco”를 지휘하고 메조소프라노 Varduhi Abrahamyan 가 노래한다. 체칠리아 바르톨리는 특별 게스트로 등장한다.

펠젠라이트술레에서 토요일 저녁에 열리는 종교음악 콘서트에서는 가브리엘 포레의 “레퀴엠”이 연주된다. 포레는 폴랭 비아드로의 딸 마리안느와 한때 약혼한 사이였다. 이미 은퇴한 후였지만 비아드로는 1869년 작곡가 본인의 요청에 따라 요하네스 브람스의 “Alt-Rhapsodie” 연주로 무대에 다시 한번 선다. 두 작품 모두 Orchestre Révolutionnaire et Romantique 와 몬테베르디 합창단 솔로이스츠를 이끄는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한다.

비아드로는 어디에 머물든지 자신의 작품을 연주하기 즐겼던 살롱을 열었다. 그녀의 작품은 항상 밝고 위트와 활력이 넘쳤다—메조소프라노 비비카 주네와 피아니스트 Carlos Aragón 가 연주하는 송마티네의 제목은 적절하게도 “Jeux d’esprit(재치 있는 작품)”이다.

그녀는 또한 자랑스럽게도 여성 오르페우스를 무려 138 회나 프랑스 무대에서 맡았다. 성령강림절 잘츠부르크대축전극장에서 열리는 엑토르 베를리오즈의 “오르페우스” 공연에는 2017년 페스티벌에서 “티토의 자비” 세스토 역으로 큰 성공을 이룬 Marianne Crebassa 가 이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그녀의 상대역으로는 Andriana Chuchman 이 에우리디체를, Marie-Sophie Pollak 이 아무르를 노래한다. 함부르크 발레단의 예술감독이자 수석 안무가인 존 노이마이어는 원작의 신화적 동작을 자신의 버전에 따라 현대 발레 무대에 선보인다. 이처럼 이 발레 오페라 작품에는 가수 외에 두 명의 무용가—Edvin Revazov(오르페우스)와 Anna Laudere (에우리디체)—가 합류하며, Gianluca Capuano 가 카메라타 잘츠부르크와 잘츠부르크 바흐 합창단을 지휘한다.

2020년 성령강림절 페스티벌의 대미는 월요일 저녁 잘츠부르크대축전극장에서 열리는 갈라 콘서트가 장식한다. 공연의 제목은 “Une affaire de famille”로 가르시아 가문에 대한 오마주다. 성악곡, 기악곡, 교향곡 악장과 아리아, 발레 간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체칠리아 바르톨리가 마리아 말리브랑, Varduhi Abrahamyan 이 폴랭 비아드로, Javier Camarena 가 마누엘 가르시아로 분하고 그 외 연주자들이 가르시아 가족의 음악적 기질을 포착한다. 막심 벤게로프가 Orchestra del Teatro di San Carl 를 이끌며 솔로리스트 및 악장을 맡는다. 카티아 부니아티쉬빌리는 피아노, Julia Hagen 가 첼로를 연주한다.

잘츠부르크 성령강림절 페스티벌과 체칠리아 바르톨리

2012 년 이래 체칠리아 바르톨리는 잘츠부르크 성령강림절 페스티벌의 예술감독을 맡고 있다. 시작부터 그녀는 여성 인물에 주력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2012 년의 테마는 “클레오파트라”로 바르톨리가 헨델의 “줄리오 체사레”에서 이집트 여왕을 노래했다.

2013 년의 모토는 “희생—제물—희생자”였다. 빈첸초 벨리니의 “노르마” 신 연출작이 2014 년 런던에서 국제오페라어워드 최우수 신작에 선정되는 영예를 받았다.

2014 년은 진정한 로시니 기념의 해로 무엇보다 모토인 “Rossinissimo”가 이를 잘 대변한다. 바르톨리는 “체넨톨라”의 신 연출작에서 주역을 맡았다.

2015 년 테마는 “이로써 신에게 청할 것인가”로 크리스토프 빌리발트 글루크의 “타우리우스의 이피게니아”는 매회 공연마다 기립 박수를 받았다.

2016 년 “로미오와 줄리엣”은 페스티벌 프로그램을 관통하는 스토리로 “웨스트 사이트 스토리”의 신 연출작이 가장 주목을 받았다.

2017 년에는 “비통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헨델의 “아리오단테”가 공연되었다. 아리오단테 남장 역할을 맡은 바르톨리는 3 막 구성의 오페라가 진행됨에 따라 사랑에 빠진 기사에서 여성으로 변신한다.

2018 년은 조아키노 로시니 서거 150 주년이였다. 페스티벌은 그를 기리며 모토를 “1868—불화의 해”로 정했다. 바르톨리는 로시니의 뮤지컬 코미디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에서 이자벨라 역할을 맡았다.

2019 년은 테마는 “천상의 목소리”로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헨델의 “알치나”가 주목을 받으며 과거의 위대한 카스트라토를 기린다.







Contact

Salzburg Festival Fund

Hofstallgasse 1

5020 Salzburg

www.salzburgfestival.at

Ticket Office

Tel. +43 662 8045 – 500

info@salzburgfestival.at

Press & PR

Tel. +43 662 8045 – 351

presse@salzburgfestival.at

Development & Sponsoring

Tel. +43 662 8045 – 490

sponsoring@salzburgfestival.at

© Salzburg Festival



For details on the programme of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Salzburg Festival visit:



www.sf100.at

The programme will be available as of 13th November 2019

To download the brochure visit:



www.sf100.at/presentations

